

# 월출산의 고장, 영암군에 새 바람이 불다

### 이들간 신규공직자 마인드 역량강화 교육 실시 우리 영암 바로 알기·공직 사회 적응 실무교육 등 전동평 군수 “혁신적 인재 성장 적극 행정 펼치길”

영암군은 영암의 미래를 이끌어 갈 2019년과 2020년 신규 임용 공직자 55명을 대상으로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영암 바로 알기’와 ‘공직 사회 적응을 위한 실무 교육’ 등 신규공직자 마인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군은 지난 2월에 추진하려했던 신규공직자 마인드 역량강화 교육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한차례 연기됨에 따라, 2019년과 2020년에 임용된 신규공직자들이 함께 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본 소양 함양과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12일 첫째날은 주요 실무팀장이 강사가 되

어 실시한 예산실무, 회계실무, 청렴실무 등 일반 교육을 시작으로 전문강사 교육이 이어졌다.

특히 군수 특강시간에는 소통의 장미 마련되어 4대 핵심발전전략산업 등 팔목할만한 군정 성과를 공유하고 영암의 미래 비전을 함께 꿈꾸며, 영암의 새로운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가졌다.

13일 둘째날은 영암 지역경제의 심장인 현대삼호중공업 견학과 왕인박 사유지 등 영암 고장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체험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서 전동평 영암군수는 “55명의 새로운 바람이 우리 공직사회에 스



며들어 신선한 활력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며, 4차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인재로 성장해 평소 갖고 있는 지식에 더욱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하고 축적해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나가 적극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초심을 잃지 말고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져 군민을 섬기는 따뜻한 봉사자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새내기 공무

원은 “코로나 19 방역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주시 감사드리며, 앞으로 영암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단정히 각오를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나가며 공직자의 친철 마인드와 직무능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 무안군, 육군 장병 100명 대상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실시

무안군은 지난 11일 육군 제8332부대 안보교육관에서 2세대 장병 100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자살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고 고위험군에 대한 대처방법,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방법 등을 훈련하여 지역사회 생명지킴이를 양성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국군 장병들의 경우 군부대라는 특수성에서 오는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대한 혼란,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우울감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울

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가 제한으로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 등 코로나블루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어 생명지킴이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

군 관계자는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은 앞으로 주변 동료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두고 위험 신호를 감지하여 동료 장병의 자살사고 방지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며 “자살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성기 기자



## 영광군, 관광공사 SNS 기자단 팸투어 ‘트래블리더’ 16명 초청...엔택트 관광지 소개

영광군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한국관광공사 SNS 기자단 ‘트래블리더’ 16명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트래블리더는 국내관광지 SNS 홍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모집 선발한 대학생 기자단으로 영광군 투어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업로드 예정이다.

이번 팸투어는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힐링할

수 영광군 엔택트 관광지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풍이 붉게 물든 볼감을 시작으로 노을이 아름다운 백수해안도로까지 관광지 외에도 영광의 대표 먹거리인 굴비 등 영광의 맛과 멋을 몸소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유영직 문화관광과장은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시대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영광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신안군, 지도읍 대진수리사 백년가게로 선정

### 1977년 창업 43년 전문업체 “신안 제1호 자부심 느껴”



신안군 지도읍 대진수리사가 백년가게로 선정되어 지난 12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최로 현판식이 개최되었다.

백년가게란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으로 신안군에서는 첫 번째로 지도읍 대진수리사가 선정되었다.

대진수리사는 1977년에 창업하여 43년이 된 가전제품 수리 전문업체

로서 지도읍 내에서 뛰어난 기술로 명성이 자자한 곳이다.

대진수리사 대표자 양대영씨는 백년가게로 선정이 된 만큼 장수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겠다고 하며 백년 성공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성주 지도읍장은 “신안군 백년가게 1호가 지도읍 대진수리사로 선정되어 영광스럽고 앞으로 제2호, 제3호가 나올 수 있도록 백년가게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코로나 19 여파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힘을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목포시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됩니다”

정부의 5단계로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목포시도 지난 7일부터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부 고위험 시설에서만 적용되던 방역수칙 의무화가 중점 관리 9종, 일반 관리 14종 등 23종 시설로 확대됐다.

실내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지만 500명 이상일 때는 자체적으로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

해 시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한편 13일부터는 중점·일반 관리 시설(23종)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

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개편된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일반·중점관리시설 등에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국, 요양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시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

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개편된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일반·중점관리시설 등에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국, 요양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시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



목포=박정수 기자

## 함평군귀농어귀촌협, 농·특산물 꾸러미 전달

(사)함평군귀농어귀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지원이 소홀해진 지역 경로당 전체에 농·특산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13일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지역 경로당 375개소 전체에 대해 관내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지속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각지의 지역축제들이 대부분 취소된 데

다 당초 기획했던 자체 행사들마저 연이어 무산되면서 해당 예산을 지역 농가와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이번에 전달되는 꾸러미는 함평에 실제 정착한 귀농인이 직접 생산한 흑미·찰쌀·굴·된장 등 총 9종의 지역 농·특산물로 구성됐다.

함평=김광훈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

함께해요!